



4면

한화 녹인 한국문화 열풍... '더 필링 코리아'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음 1월 24일) 제368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이차전지 산업 핵심거점 본격 시동

새만금 특화단지 기반 연구·인력 지원 강화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인재 양성 등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개정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혁신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업 거점 마련의 기반을 닦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인프라 구축, 핵심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 인프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 센터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소재 연구 및 재자원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환경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유치도 계획하고 있어,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2027년까지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계별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실무와 연구개발(R&D)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생·번영 위해 힘 모으겠다'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2차 회의가 20일 '익산 고도 한눈에(愛) 세계유산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협의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관련기사 3면>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배터리 아카데미, 군산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대학 지정에도 재도전할 계획이며, KAIST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도 추진해 차세대 기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품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을 돕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판로 개척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정

책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무주군이 세계관광청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서 한국 후보로 선정됐다. 사진은 무주읍 별빛다리에서 벌어져 빛의 향연.

무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되나

세계관광청 주관 공모서 한국 후보로 선정 도내에서는 '유일' ... UN 본심사서 경쟁 4월까지 관광공사 컨설팅 받으며 최종 대응

무주군이 세계관광청(UN Tourism)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공모에서 한국 후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는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및 자연 자원, 경제·사회·환경적 지속 가능성, 관광 개발 및 가치사슬의 통합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무주군은 지난 13일과 14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진행됐던 발표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국내 후보지(8곳) 중 1곳으로 이름을 올렸다.

무주군은 무주읍 읍내리의 자연과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토대로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를 품은 친환경 생태문화휴양의 중심,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동부산업권 교통의 요충지, △온화하고 진취적인 주민들의 삶터임을 강조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환경 지표 곤충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으로서 국내 최고의 힐링 여행지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으며

무주반딧불축제는 친환경축제와 여행을 결합한 '에코투어리즘(Eco Tourism)'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국가유산 보물 한포구를 비롯한 향토산과 낙화놀이 등 다채로운 자연 및 전통·문화유산 역시, 세계적인 관광마을로 추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 무주읍에서는 현재, 남대천 주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비롯한 태권브이랜드, 생태모험공원 등 다양한 관광 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자연 자원과 연계한 여행코스 탄생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오는 4월 말까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보마을 컨설팅을 받은 후 12월 세계관광청(UN Tourism) 최종 심사에 도전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특별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모델로 지역소멸 위기 또한 거뜰히 넘을 모범답안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한국의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무주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군산이나? 김제나?'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오늘 회의 예정... 쉽게 결정되지 못할 듯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관할권이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1일 회의를 개최,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새만금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변을 잇는 16.4km 길이로 지난

2020년 개통됐다. 하지만 행안부의 중분위 결과가 군산과 김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쉽게 결정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할권에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 및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과 김제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의 관할권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새만금 신항 운영권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방식에서 군산과 김제는 그 방식이 서로

다르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을 보충하는 항, 즉 하위 항만으로 건설되는 소위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외에 별도의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투포트' 무역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권 다툼은 매립된 땅을 놓고서만 가능한데 추후 신항만이 완공된 후 관할권 다툼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여진다. /뉴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이제 임실 임실

2025 임실 방문의 해 Visit Imsil year



임실N치즈축제

육정호 전경

육정호 출렁다리

임실산타축제